

圖書記號上의 版次表示 方法에 관한 研究

金 南 碩*

目 次

- | | |
|----------------|--------------------|
| I. 緒 言 | III. 版次表示의 方法 및 適用 |
| II. 版의 定義 및 種類 | 1. 版次表示의 方法 |
| 1. 版의 定義 | 2. 版次表示 方法의 適用 |
| 2. 版의 種類 | IV. 結 言 |

I. 緒 言

圖書館의 가장 基本的인 資源은 圖書와 視聽覺的인 情報資料이다. 이러한 資料는 그 自體가 重要한 價値를 지녀야 되지만, 더욱 重要한 것은 活用될 수 있는 諸與件을 갖추는데 있다. 그러므로 圖書館에서의 情報資料란 반드시 그 活用方法이 우선적으로 考慮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 活用方法이 바로 圖書館에서의 整理機能이며 이 機能이야말로 圖書館이 그 奉仕의 目的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機能으로 반드시 專門人만이 해결할 수 있는 技術的인 機能인 것이다.

이 整理機能은 ①보다 쉽게 資料를 檢索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纖細하고 正確한 內容에 관한 그 資料의 올바른 價値를 讀者들에게 認識하게 하고 ② 迅速하게 그리고 構體的으로 資料에 接近하게 할 뿐 아니라 ③ 이 整理 自體가 圖書館의 水準을 決定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意味에서 많은 藏書의 확보와 아울러 반드시 組織的인 整理가 並行되어야 하고, 整理를 通해서 藏書의 質的인 利用에 寄與할 때만이 圖書館 整理의 價値가 認定되는 것이다. 本 研究는 이러한 資料利用의 根幹이 되는 整理機能 중에서 廣範하고 高次元的인 知識과 세심하고 組織的인 機能이 要求되는 圖書記號上의 版次에 대한 事項을 理論的으로 論述해보고 그 性格에 따라 請求記號上에서 區分지을 수 있는 根據를 實證的으로 考察하여 理想的인

* 啓明實業專門大學 副教授

表示方法을 提示해 보는데 있다. 勿論 圖書記號上的 版次表示에 대해서는 여러 學者들에 의해서 많은 理論들이 提示되었으나, 이러한 理論들의 大部分은 綜合的이고 構體的인 論理的 背景이 없이 極히 斷片的이고 枝葉的으로 圖書記號 構成의 理論 중에 若干씩 言及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므로 本研究는 지금까지 斷片的으로 提示된 諸學者의 理論을 다시 綜合하여 請求記號의 屬性에 適合한 假說을 設定하여 分析해봄으로써 圖書記號의 構成에 보다 理論的인 接近을 試圖하고자 하는 것이다.

圖書記號의 版次에 대한 區分은 그 版이 가지는 內容의인 面과 時代的인 與件을 考慮한다면 어떤 意味에서든 分明히 區分되어야 하고, 利用者들에게 確히 認知되어야 할 事項이다. 이렇게 版次的 區分이 必要한 것은 하나의 題目(書名)下에서 그 內容이 學問的으로 혹은 量的으로 變化된 경우, 初版의 그것과는 달리 그 價値가 版次에 의해 부각된다는 點에 있으며, 또 다른 측면에서의 版次區分의 必要性은 古典的인 意味에서 內容의인 改訂보다 版의 價値에 따라 區分지워준다는데 더 큰 意義가 있다.

前者가 學問의 時代性에 따른 價値의 重要性이라면 後者는 그 書誌的인 意味에서, 예를들면 內容이나 時代的인 變化에 관계없이, 그 資料의 初版이나 重版 여부에 따라 資料의 價値를 認定하는 경우라고 하겠다. 이러한 資料들은 外形的으로는 그 價値가 많지 않지만 그 內的인 즉, 圖書館의 藏書構成이나 整理業務에 있어서는 그 區分이 分明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裝幀에 따른 版表示의 必要性은 그 版의 外形的인 特性이나 出版社의 權威 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內容이나 書誌的인 面에서는 그 區分에서 별다른 意義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版次區分이 圖書記號上에 있어서는 初版資料의 請求記號와 언제나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며 初版의 請求記號에 連續的인 意味로 添加되어야 할 性質의 것이라는 點에서 版次表示의 構成에 대한 記述的인 解決方法을 모색해보는 것이 本研究의 주된 취지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本研究의 目的을 다음과 같이 設定하였다.

- ① 版에 대한 理論的인 定義와 版表示方法의 種類에 대해서 알아본다.
- ② 請求記號上에 있어 版次表示方法에 대한 諸理論을 考察하며,
- ③ 版次的 性格에 따른 諸理論을 適用해봄으로써 그 외의 問題點을 지적한다
- ④ 版次表示의 새로운 方案을 모색하여 그 妥當性을 分析한다.

II. 版의 定義 및 種類

1. 版의 定義

版에 관한 定義는 두개의 概念 즉, “版이 무엇이나”라는 用語上的 概念과 圖書整理에 있어서 版次 즉 同一版이나? 아니면 異版이나? 하는 “版次表示上의 適用範圍”에 관한 概念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版次表示의 範圍設定은 圖書整理時에 同一著者が 쓴 同一內容의 版種別圖書를 同一圖書로 認定할 것이냐 認定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重要한 問題와, 이에서 비롯된 圖書整理의 最大의 關鍵인 體系化와 秩序化의 維持라는 點에서 明確한 確認이 必要하다고 본다.

첫째의 概念인 版의 定義는 많은 既存論著에서 여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定義 가운데 몇개의 重要한 것을 分析하여 그 論理上의 共通點을 推出하여 定義定立의 妥當性을 立證해 보고자 한다.

우선 韓國圖書館協會의 圖書館用語集에 의하면 版이란 “著作을 著者 또는 이를 繼承한 編者が 발행할 때 使用되는 繼續的인 形式表示”⁽¹⁾라고 規定하고 있으며, Harrod의 *The Librarians Glossary*에는 版이란 “同一形態 혹은 同一圖版으로 印刷되어 同時에 혹은 間歇적으로 發行된 著作의 全卷, 나아가 個個의 印刷形態에 의한 著作의 構體的 表現”⁽²⁾이라고 規定되어 있다. 한편 木寺清一의 「洋書事典」에는 “同一의 組版(Setting of type), 혹은 組版을 根本으로 하든가 다른 方法에 의해 版型(Plates; papier-Maché Mould, Stereotype, Electrotpe)을 사용하든가, 여하튼 印刷되어진 全部를 版이라고 한다”⁽³⁾로 規定하고 있다.

以上 몇개의 定義를 綜合하여 分析해 보면 이러한 定義는 그 論理가 대체로 一貫性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一般的으로 圖書館用語上의 概念으로서의 版이라고 하는 것은 印刷된 同一著作의 形式表示임을 確認할 수 있고, 여기에서 同一著作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同一形態 혹은 同一組版(圖版)에 의하여, 同時에 혹은 間歇적으로 印刷된 著作임을 또한 確認할 수 있다.

(1) 韓國圖書館協會 編. 圖書館用語集. 서울, 同協會, 1966. p. 13.

(2) Harrod, Leonard Montaque. *The Librarians Glossary and Reference Book* London, André Deutsch, 1971. p. 234.

(3) 木寺清一. 洋書事典. 東京, 明治書院, 昭和 50. p. 100.

4 도서판학논집

그러므로 위의 確認에 의해 版의 用語上 概念은 “同一形態(組版, 圖版)에 의해 同時에 혹은 間歇的으로 印刷된 著作의 形式表示”라고 規定지을 수 있다.

둘째의 概念인 版次의 範圍에 관한 版次의 차이 즉 版의 變化에 따른 範圍에 의해 異版 혹은 改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同一版으로 볼 것이냐 하는 版次의 適用範圍에 대한 明確한 確認이 版의 定義에 規定되어야 한다.

版次란 “한번 出版된 圖書가 그 후 著者 自身이나 혹은 그것을 繼承한 사람에 의해 改訂 또는 다시 增補된 경우 그 하나하나에 붙이는 出版의 順次⁽⁴⁾를 말하며, 改訂 또는 增補에 의한 版次 즉 異版이 될 수 있는 경우는 “原文의 變更, 活字의 部分 혹은 全體의 變更, 圖書形態의 變更에 의해 印刷된 著作”⁽⁵⁾을 版次의 範圍로 適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同一組版에서 印刷되는 모든 圖書는 印刷時期 또는 回數에 關係없이 同一版⁽⁶⁾이 된다. 本文에 本質적인 變更이나 追加된 경우, 혹은 組版, 判型의 變更 또는 고친 原稿를 基礎로 한 組版이나 判型을 基礎로 해서 印刷된 것은 일단 異版으로 認定할 수 있다.

盧震京의 「圖書學大辭典」에서는 版次를 “同時에 出版된 一種의 書籍 혹은 雜誌를 版이라 한다”⁽⁷⁾라고 하여 同時에 出版된 모든 書籍을 同一版으로 時間上의 限界를 指摘하고 있으나 組版, 判型의 變更없이 隨時로 여러번 重複되어 印刷된 것은 重刷가 되고 版의 變化는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版次의 範圍 즉 版의 變化에 따른 異版으로 認定할 수 있는 것은 基礎가 된 原文의 變更, 組版, 判型의 部分 혹은 全體의 變更, 著作形態의 變更 등으로 限定할 수 있다.

위의 두 概念을 綜合해보면 版이란 同一形態에 의해 同時에 혹은 間歇的으로 印刷된 著作의 形式表示”라고 規定지을 수 있으며, 版次의 適用範圍는 原文의 變更, 活字의 變更, 圖書形態의 變更” 등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2. 版의 種類

版의 種類는 觀點에 따라 多樣하게 類別되나 本考에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다. 한 가지는 內容의인 變化에 의한 즉, 內容의 增補, 修正, 改正 등에 관한 表示方法으로 이를 版次 혹은 版數 등으로 表示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內容의인 變化에는 關係없이 物理的인 變化 즉, 圖書의 裝

(4) 布川角左衛門 等編, 出版事典. 東京, 出版ニコース社, 1971. p. 332.

(5) Harrod, Leonard Montaque. *op. cit.* p. 234.

(6) 韓國圖書館協會. *op. cit.*

(7) 盧震京, 圖書學大辭典.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民國 60. p. 279.

幀, 印刷, 出版形式, 出版社의 特徵, 發行者의 特徵, 版種 등에 대한 表示方法으로 圖書의 構成에 대한 特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版의 두가지 區分을 朴奉石은 “版數”와 “版種”으로 命名하여 區分하고 있다.⁽⁸⁾ 즉 圖書內容의 變化에 따른 區分을 “版數”로 하고, 圖書의 印刷形態에 의한 版表示를 版種”으로 命名하여 區分하고 있을 뿐, 筆者와 그 軌를 같이 하고 있다.

위와 같이 一般的으로 版의 區分을 두가지로 大別하고 있지만 實際表示方法으로 쓰이고 있는 版의 種類들은 무척 많아서 일일이 다 列舉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들 중에서 圖書內容의 變化 즉 內容의 改訂에 대한 性格의인 特徵을 表現하는 것만 대충 列舉하면 表 1과 같다.

表 1. 圖書內容의 變化에 따른 版種

名 稱	語	義	文獻別 使用實例	備 考
訂 補	바로잡고 결점보충		白眉故事	
訂 正	잘못을 고쳐 바로잡다		飄岩誌	
補 正	결점을 보충하여 바로잡다		朝陽學鑑	中國本
改 良	좋게 고친다		紫微斗數全書	
校 訂	내용을 바로잡는다		慶尚道地理誌	
校 刪	校訂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		華海師全	日本書
校正補刻	내용대조, 고치고 보충하여 새김		古今學變	
新 修	새로 편집하여 수정		龍龜手鑑	
增 補	미비한 것을 보충하여 더 늘임		文獻備考	增補改正, 增補訂正 등 增補再版
增 修	增補修正		無冤錄	
新 增	새롭게 增補		東國輿地勝覽	
新 稿	새롭게 빛나게 함		許眞君玉匣記	
增 正	늘려 바로잡음		交隣志	
增 改	더 늘이고 고침		禮記	
增 廣	내용을 크게 늘임		神相全書	中國本
改訂新稿	잘못된 것 고쳐 새롭고 빛나게 함		朝鮮全圖	日本京都刊
增 訂	모자란 것 보태고 잘못된 것 바르게		敬信錄,	
增 稿	내용을 늘이고 줄임		呂氏鄉約	
續修增補	續修하여 보충		江都誌	
重 修	다시 고침		廣韻	中國本
重 訂	두번째 訂正		六書通	(重增)格物入門

(8) 朴奉石, 洋書目錄法(講義用草案), 4280. 97條—100條參照.

名 稱	語 義	文 獻 別 使 用 實 例	備 考
重 校 訂	재차 내용을 고쳐 바르게 함	紀元編	改正增補 改正新鑄(刻) 修正增補 合訂刪補 (參考事項) 參考事項 參考事項
再 訂	다시 訂正	支那學入門書略解	
新 訂	새롭게 고침	四書補註備旨	
增 刪	詩文을 다듬기 위해 보태거나 삭제	濂洛風雅	
改 訂	잘못되고 틀린 것 바르게 고침	一般圖書	
改 正	잘못되고 틀린 것 바르게 고침	一般圖書	
修 訂	잘못을 바르게 고침	一般圖書	
修 正	바로잡아 고침	一般圖書	
刪 補	불필요 부분 삭제, 필요 부분 더함	大易集義粹言 (中國書)	
釐 正	文書나 글을 정리하여 바로잡는다		
改 刊	고쳐서 간행		

다음은 印刷形態의 變化 즉 版의 物理的인 特徵을 表現하는 것으로는 그 表現方法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음에서 개괄적인 기준이 되는 몇개의 特徵만을 考察해 보았다.

① 內容의 改變에 의한 版.

著者自身이나 他人에 의해 原著에 改變을 加한 各種의 版을 말한다.

省略版, 摘要(Abridged edition, abridgment)

拔萃, 抄錄(Epitome)

削除版(Expurgated edition)

翻案, 改作(Adaptation)

脚色(Dramatization) 등이 있다.⁽⁹⁾

② 購買對象에 의한 版.

圖書의 販賣를 위한 書誌的인 特殊性을 考慮한 版을 말한다.

裝飾小型版(Cabinet edition)

廉價版(Cheap edition)

圖書館版(Library edition)

限定版(Limited edition)

포켓版(Pocket edition)

(9) 木寺清一. 洋書目錄法解説. 東京, 明治圖書, 1975. p.19.

普及版(Popular edition, Volksausgabe)

教科書版(Textbook edition, Schulausgabe)

店賣版(Trade edition) 등이 있고⁽¹⁰⁾ 이외에도 有名한 人名이나 出版社의 이름을 빌려 內容의 信賴性을 알리므로써 販賣에 도움을 주기 위한 版表示 등이 있다.

③ 古書의 版種

이 경우는 特히 古書에 있어서 內容의 改訂이 아닌 同一한 內容으로 그 圖書를 印刷한 版에 대한 區分이다.

그 種類는 區分方法에 따라 매우 복잡하다. 대충 그 중요한 것을 들면 ;
時代的區分……高麗版, 宋版, 明版 等

地域的(開版地, 收藏地)區分……全州版, 海印寺版, 私家版 等

印刷方法에 의한 區分……石版, 寫眞版, 影印版 等

版材種類에 의한 區分……木版, 活字版, 銅活字版 等

刊行動機에 의한 區分……勅版, 欽定版, 官版 等

出版關係에 의한 區分……刊經都監版, 新文館版, 改造社版 等⁽¹¹⁾이다.

이러한 版은 新刊에서는 그다지 重要하게 취급되지 않고 있으나 古書에서는 一般圖書의 改訂에 대한 版次的 價値이상으로 版種의 重要性을 書誌的인 立場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와같이 書誌的인 意味에서 版에 의한 圖書의 價値가 認定될 때는 반드시 內容의 改訂에 의한 版次가 아니라도 各版의 區分이 可能하도록 圖書記號에 表示되어야 한다. 따라서 版의 性格上 區分에 의하여 圖書記號上的 그 表示方法은 嚴格히 區別될 수 있어야 한다.

이 두가지 性格의 區分은 그 重要性을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겠는데, 一般的으로 版數 즉 圖書內容의 改訂에 의한 區分은 어떤 方法에서든지 圖書記號上에 반드시 表示하도록 하고 있는가 하면, 版種 즉 物理的인 變化에 의한 것일 때에는 表示하지 않아도 될 程度로 그 重要性이 認定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古書의 書誌的인 意味에서 版種의 表示는, 前述한 바와 같이 版數에 못지 않을 程度로 重要的인 意味를 지닌 경우도 있으므로 이 兩者 즉 版數와 版種에 관한 表示方法도 하나의 區分對象이 되어야만 한다.

(10) *Ibid.*, p.20

(11) 朴奉石 編. 朝鮮東西編目規則. 서울, 國立圖書館, 1948. p.3.

Ⅲ. 版次表示의 方法 및 適用

1. 版次表示의 方法

版을 表示하는 方法은 既存의 表示方法이 주로 版數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本考에서는 版數에 의한 諸理論과 方法을 우선적으로 考察하고, 版種에 의한 것은 結論部分에서 새로운 方案으로 提示해보고자 한다.

版次表示에 대한 理論은 지금까지 그 方面의 研究者들과 圖書館實務者들에 의해서 公式的, 非公式的으로 일일이 列擧할 수 없으리 만큼 많은 方法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本考에서는 이러한 諸方法들을 研究의 限界上 全部 考察할 수 없고, 단지 文獻을 통해 論理的으로 體系化된 것만을 中心으로 하여 考察해 본다. 이렇게 體系化된 表示方法을 몇가지로 集約하면 첫째는 受入順에 따라 알파벳의 文字를 附記하는 方法이며, 둘째는 發行年度를 附記하여 版數를 表示하는 方法이고, 셋째의 方法은 書誌的 表現方法인 改訂回數를 附記하는 方法을 들 수 있다.

다음에서 이들을 詳細히 考察해 보기로 한다.

1) 版次를 알파벳화하여 文字를 附記하는 方法¹²⁾

이는 版次의 表示로 文字를 附記하여 資料의 配列順序를 定하는 方法이다. 이는 다시 두가지 方法으로 나눌 수 있다.

① 版次의 回數에 대한 序列에 關係없이 受入順에 따라 文字를 *a, b, c*... 나 *1, 2, 3*...를 附記하는 方法이다.

日本十進分類法

森 清

初版

014.4
Mo45

改訂五版

014.4
Mo45a

改訂六版

014.4
Mo45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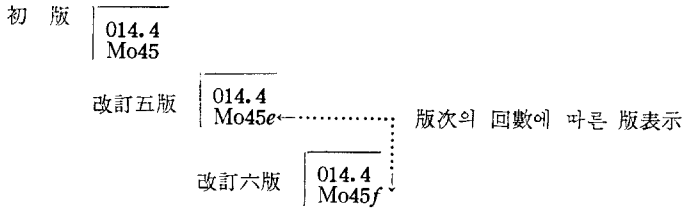
版次表示를 위해
주어진 受入順
記號

이 方法은 例와 같이 版次의 回數에 關係없이 初版이 整理된 후 初版의 圖書記號에 受入順序에 따른 任意의 文字 즉 *a, b, c*...를 附記하여 請求記號上에

(12) 眞田茂, 西條惠子 共著, 資料分類法, 東京, 教育出版センター, 1976, p. 241.

各冊의 序列을 決定한다.

② 改訂에 대한 版次의 回數를 숫자에 의하지 않고 文字의 順序로 한 것이다. 이는 初版의 圖書記號에 再版은 「a」 또는 「ㄱ」, 3版은 「b」 또는 「ㄴ」, 4版은 「c」 또는 「ㄷ」... 등 版數의 序列을 文字로 바꾸어 區分되게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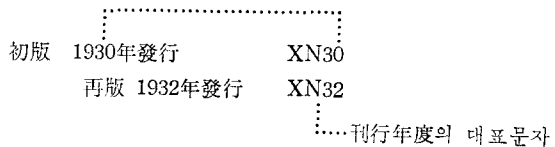
이는 同一한 書名의 資料가 受入順에 關係없이 版次의 順序에 따라 配列된다

2) 發行年度를 숫자로 表示하는 方法

이는 版次의 表示를 該當圖書의 發行年度로 表示하는 方法으로 初版 이외의 資料 즉 再版부터 年度를 圖書記號에 附記하여 版次의 順序에 따라 配列하는 것이다. 이는 版次를 발행년도로 統一해서 쓰기도 하나 다른 한가지 경우에는 版次의 回數를 표시하기 보다 성질상 출판년도를 表示하는 것이 더 낫다고 믿어지는 경우이다.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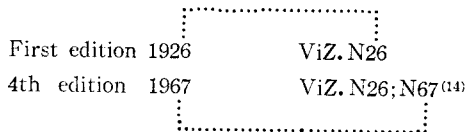
① 圖書記號에 發行年度를 混合하는 方法. 版次의 表示를 初版의 圖書記號에 連續附記함으로써 版次의 回數에 따른 順序로 圖書가 配列되게 하는 것이다. 이때 表示되는 年度는 識別이 可能한 範圍에서 簡略하게 表示한다.

ECONOMICS.



A MANUAL OF CLASSIFICATION FOR LIBRARIES.

by W. C. Berwick Sayers.



(13) 이재철, 東西著者記號表.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3. p. 26.

(14) Colon 分類에 의한 圖書記號(Cataloging, its theory and Practices. Calcutta, World Press, 1974. p. 192.)

이 방법은 콜론(Colon) 分類法에 의한 圖書記號의 版次表示方法으로 該當西紀年度 중에서 共通의인 1900을 省略하고 10단위의 30이나 32만을 賦與함으로써 보다 簡單히 識別이 可能한 것이다.

HENLEY'S TWENTIETH CENTURY BOOK OF FORMULES

Edited by Gardner Dexter Hiscox

First edition	820 H673h
4th edition (1945)	820 H673h'45

前述한 것과 同一한 方法이기는 하나 1900年の 省略으로 省略附號로 쓰인 어 포스트리피를 附記하고 該當年度를 表示하는 方法이다.⁽¹⁵⁾

② 圖書記號 이외에 별도로 發行年度를 附記하는 方法.⁽¹⁶⁾ 이는 圖書記號와 나란히 該當 發行年度를 附記하므로 請求記號를 3行이나 4行이 되게 하는 方法이다. 즉 Cutter Number 다음에 行을 달리하여 출판년도를 표시하는 方法이다.⁽¹⁷⁾ 前者와 同一한 성격의 表示이기는 하나 該當年度를 完全히 表示할 수 있다는 利點이 있다.

A MANUAL OF CLASSIFICATION FOR LIBRARIES

by W. C. Berwick Sayers

First edition(1926)	025.4 S274n
4th edition(1967)	025.4 S274n 1967..... 初版以外の 版次表示를 위한 發行 年度 ⁽¹⁸⁾

이는 L. C.의 著者記號法으로 보다 많은 資料의 分類體系에 該當하는 方法이라 하겠으며 이때 使用되는 年度의 表示는 반드시 統一된 形式의 年度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圖書에 表示된 年度에 關係없이 하나의 統一된 西紀年度를 表示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15) 金南碩, 目錄學. 大邱, 啓明大學校 出版部, 1978. p.183.

(16) 綾藤純郎 編, 分類と 目錄. 東京, 日本圖書協, 1974. p.46.

(17) Mann, Margaret.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the Classification of Books.* Chicago, ALA., 1943. p.92.

(18) *Ibid.*, p.92.

3) 版次的 回數를 附記하는 方法⁽¹⁹⁾

이 方法은 우리 나라 圖書館界에서 統一된 原則처럼 가장 많이 使用되는 方法이다. 이것은 圖書記號에 版의 回數를 아라비아숫자로 表示한 것이다.

THE PRICE SYSTEM AND RESOURCE ALLOCATION

by Richard H. Leftwich

First edition(1955)	320.1 L495p
Revised edition(1964)	
Fourth dition(1970)	320.1 L495p4
5th edition(1973)	
	320.1 L495p5 ⁽²⁰⁾

2. 版次表示方法의 適用

版次表示方法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受入順에 의한 文字의 附記方法, ㉡發行年度에 따라 숫자로 附記하는 方法, ㉢改訂回數를 附記하는 方法의 3가지 方法을 실제 版次表示에 適用해보면 다음과 같다. (例示의 ㉠㉡㉢은 위의 表示方法을 말하며, 分類番號는 KDC에 의하고 著者는 東書인 경우는 이재철 저 자기호표(제5표), 洋書인 경우는 Cutter-Sanborn에 의하였음)

1) 著者 自身에 의한 改訂書

AMERICAN JOURNALISM

by Frank Luther Mott
3rd edition(1962)

㉠	074.2 M921aa	074.2 M921ab	M=著者 Mott a=書名 American a, b=版次表示
㉡	074.2 M921a'62	074.2 M921a 1962	'62=3版 發行年度 1962年の 省略表示 1962=3版 發行年度
㉢	074.2 M921a3		3=版次의 回數인 3版의 表示

㉠의 경우는 圖書記號의 受入順에 따라 알파벳의 a, b, c...를 表示한 것과

(19) Barden, Bertha R. *Book Number*. Chicago, ALA., 1971. p.17.

(20) Mann, Margaret. *op.cit.* p.91.

版次の回數에 따라 그 順序를 정한 再版을 「a」, 3版을 「b」로 表示한 것이다. 文字에 의한 改訂의 版次表示는 請求記號上에 初版과의 區別은 可能하나 圖書記號에 表示된 「a」나 「b」만으로는 그것이 版次の 表示로 주어진 것인지 또는 複雜한 著作表示로 주어진 것인가를 識別할 수 없다. 또한 숫자에 의한 版次の 表示 대신 그 序列에 따라 a, b, c를 附記하였을 경우에는 前者의 경우에 비해서 版次の 回數에 따른 序列은 正確히 表現된다. 그러나 圖書記號만으로 版에 대한 識別이 困難하며 이에 대한 識別은 圖書館의 版次表示에 대한 相當한 知識이 必要하게 된다.

㉠의 경우는 圖書記號에 改訂版의 發行年度를 附記한 例인데 圖書記號에 계속해서 發行年度를 略式으로 記載한 경우와 圖書記號와 行을 달리하여 完全形式의 發行年度를 記錄하는 方法이다. 年度에 의한 表示方法은 版次の 回數를 改訂版이 發行된 年度를 請求記號에 表示하여 各 版次の 區分을 可能하게 하는 方法이다. 이와같은 版次表示方法은 改訂序列에 따라 資料의 配列이 可能하고 請求記號 만으로도 그 資料의 最新性を 쉽게 區分할 수 있는 長點이 있으나 反面에 發行年度 만으로 改訂의 回數를 알 수 없으며 또한 請求記號의 構成이 比較的 複雜하고 두 行으로 가능한 請求記號의 構成이 3行으로 되기 때문에 그 配列에도 問題가 있다.

㉡의 경우는 圖書記號에 版次の 回數를 아라비아숫자로 表示하는 경우이다. 아라비아 숫자에 의한 版表示가 되므로 쉽게 著作表示와 區分되고 二單位 이상의 版次表示 즉 10版 이상의 版次表示에 該當하는 資料는 혼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比較的 簡單히 請求記號가 作成될 수 있다. 그리고 配列도 版次の 回數에 따라 쉽게 配列될 뿐 아니라 請求記號만으로도 版次를 쉽게 알 수 있다는 長點이 있다. 그러나 版次가 年度로 表示되는 年鑑이나 百科事典의 경우는 解決이 困難한 점이 있으며 請求記號만으로는 ㉠의 경우처럼 資料의 時代性を 쉽게 把握할 수 없다는 短點도 있다. 그리고 改訂이나 訂正 등 版次에 대한 區分을 아라비아숫자로 固定시켜야 한다는 點에서 版次の 回數에 대한 表示가 圖書館에 따라 一致되지 않을 수도 있다. 例를 들면 “改訂增補”라고 할 때 “改訂”이 2版이고 “改訂增補”는 3版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를 2版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再印刷과 改訂版

다음 Post의 도서는 1922年 初版이 發行된 以後 89回의 再印刷을 하였으나 實際 改訂은 10回였다. 그러므로 發行年度를 改訂의 版表示로 주어질

ETIQUETTE: THE BLUE
BOOK OF SOCIAL USAGE
by Emily Price Post
10th ed. (1960)
New York
Funk & Wagnalls, 1963

①

194
P857e'60

194
P857e
1960

P=著者 Post
e=書名 Etiquette
'60, 1960=해당版的
發行年度

②

194
P857e10

10=版次的 回數
表示

때 單純히 再印刷을 위한 發行年度는 無視하고 改訂에 의한 發行年度를 부기한다. 本書의 例와 같이 1960年 發行된 10版과 同一한 內容이 1963年에 다시 再印刷되어 發行되었다해도 改訂 당시의 發行年度 1960을 版表示로 請求記號에 附記한다. 그러나 카드 整理上 必要한 出版事項에는 發行年度 1963을 附記해야 한다.

3) 同年에 2回 以上 改訂된 경우

DICITIONARY OF PHRASE & FABLE

by Ebenezer Cobham Brewer
7th edition (1963)
8th rev. ed (March 1963)
New York
Harper & Row, 1963.

①

744
B847da

744
B847db

a=7版的 受入順 임의 부호
b=8版的 " "

②

744
B847d
1963

744
B847d
1963r

744
B847d
1963/3

1963=7版的 發行年
r=7版과의 區分
을 위한 개정
판에서
/3=7版과의 區分
을 위한 發行月

③

744
B847d7

744
B874d8

7=7版的 回數
8=8版的 回數

위의 Brewer의 도서는 1870年初版이 發行된 後 1963年 까지 8版이 發行되었다. 再版에서 7版까지는 edition으로 되어있고 8版은 revised edition으로 되어있으며 7版과 8版이 1963年인 同年에 刊行된 것이다. 이 때는 「B847d7」과 「B844d8」로 版表示를 아라비아 숫자나, 「B847da」나 「B847db」와 같이 任意의 附號로 版表示를 할 때는 쉽게 區分이 된다. 그러나 發行年度에 의한 경우는 相當히 複雜하게 區分되어야 한다. 「B847d 1963」를 7版的 圖書記號로 주어진다던 改訂8版은 同一年度內에서 區分되어야 하므로 「B847d 1963r」의 例와 같이 同年度의 다음에 revised의 表示인 "r"을 부기하거나 發行日까지를 表示한 「B847d 1963/3」으로 해야하는 複雜性이 따른다.

4) 著者と 改訂者가 다를 때

다음 Granger의 도서는 著者が 改訂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改訂된 경우이다. 請求記號의 作成에는 크게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첫째는 初版의 著作을 中心으로 初版의 圖書記號에 改訂者를 附記하여 原著作과 나란히 配列되게 하는 方法⁽²¹⁾과 둘째는 改訂事實이 더 重要하여 改訂作品을 中心으로 請求記號를 作成하는 方法이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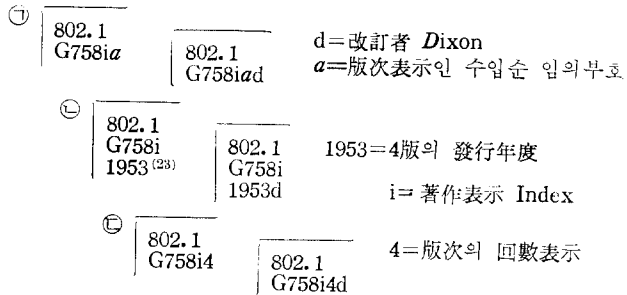
INDEX TO POETRY

by Edith Granger

4th ed., completely rev. & enl., indexing
anthologies published through Dec. 31, 1950.

edited by Raymond J. Dixon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53



「G758i4d」는 書誌的인 順序에 따라 作品表示 다음에 版次表示를 하고 著者自身이 改訂한 「G758i4」의 請求記號와 區分하기 위하여 「G758i4d」와 같이 改訂者의 表示인 “d”를 附記하여 區分해 보았다. 그러나 改訂者인 “d”를 附記하지 않고 「G758i4」만으로 請求記號를 構成해도 同一한 圖書의 版에 改訂이 同時에 여러 사람에 의해서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혼하지 않다는 점에서 書架配列上의 區分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書誌的인 意味에서 著者의 直接的인 改訂과 改訂者가 다를 때와의 區分이 明確치 못한 점도 있다.

「G758i 1953」의 경우에는 改訂된 發行年度를 表示했다. 이때는 前者와 같이 改訂者의 表示를 할 수 없으며, 無理하게 改訂者를 表示해야 될 경우에는 「G758i 1953d」와 같이 發行年度 다음에 改訂者의 表示를 해야만 하므로 請求

(21) AACR 14A 규정참조.

(22) AACR 14B 규정참조.

(23) Dean, Hazel. *Cataloging Manual to Supplement the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1967. Revised by Vivian Prince. Los Angeles. School of Library Science Univ. of Southern California, 1969. p.23.

記號가 相當히 複雜하게 되면서도 書誌의인 表現이 分明치 못하여 利用者 理解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다. 또한 任意附號 *a, b, c*를 附記한다면 改訂者에 대한 區分은 더욱 困難하다. 「G758i**b**」의 경우 任意附號 *b*는 改訂을 나타내는 版次의 受入順附號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改訂者의 表示를 「G758i**b**d」로 한다면 請求記號만으로 그 版에 대한 性格 區分이 어려우며 또한 改訂者에 대한 表示는 書誌의인 意味와는 別關係없이 單純한 區分을 위한 것에 不過하다.

改訂者가 基本記入이 될 때 도 역시 2가지 方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原著作과 함께 配列될 수 있도록 原著作과 同一한 方法으로 圖書記號 「G758i**a**d」, 「G758i」, 「G758i**4**d」로 하고 目錄의 基本記入에만 改訂者를 中心으로 記錄하는 것이다. 둘째는 完全히 改訂者를 中心으로 하는 方法으로 原著作에 관한 事項을 註記하는 方法이다. 이때 請求記號 역시 版次의 回數에 關係없이 改訂者의 改訂書를 初版으로 한다. 例에서도 Dixon이 4版으로 改訂하였으나 Dixon에 의한 것을 初版으로 생각하고 圖書記號를 作成해야 하므로 請求記號인 「802.1 D62i」에는 版次의 回數는 附記치 않고 著者表示 “D”와 著作表示 “i”만 採記하면 된다.

5) 各版의 改訂者가 다를 때

LIST OF SUBJECT HEADINGS

Edited by Minnie Earl Sears

New York:

H. W. Wilson Co., 1923

初 版	024. 34 S439/
-----	------------------

위의 Sears 도서는 1923年 初版이 發行된 후 繼續 改訂發行되었다. 그리고 特色은 다음 表와 같이 많은 사람에 의해서 繼續 改訂發行되고 있다는 것이다.

	原著作中心	改訂者中心						
Second edition 1926 ed., by Minnie Earl Sears	<table border="1"> <tr> <td>024. 34 S439/ 1926</td> <td>624. 34 S439/2</td> </tr> </table>	024. 34 S439/ 1926	624. 34 S439/2	<table border="1"> <tr> <td>024. 34 S439/2</td> <td>1962=再版의 發行年度로 版次의 表示 2=再版의 回數로 版次表示</td> </tr> </table>	024. 34 S439/2	1962=再版의 發行年度로 版次의 表示 2=再版의 回數로 版次表示		
024. 34 S439/ 1926	624. 34 S439/2							
024. 34 S439/2	1962=再版의 發行年度로 版次의 表示 2=再版의 回數로 版次表示							
Third edition. 1933 ed. by Minnie Earl Sears	<table border="1"> <tr> <td>024. 34 S439/ 1933</td> <td>024. 34 S439/3</td> </tr> </table>	024. 34 S439/ 1933	024. 34 S439/3	<table border="1"> <tr> <td>024. 34 S439/3</td> <td>1963=3版의 發行年度 3=3版의 回數表示</td> </tr> </table>	024. 34 S439/3	1963=3版의 發行年度 3=3版의 回數表示		
024. 34 S439/ 1933	024. 34 S439/3							
024. 34 S439/3	1963=3版의 發行年度 3=3版의 回數表示							
Fourth edition 1939 ed. by Isabel Stevenson Monro	<table border="1"> <tr> <td>024. 34 S439/ 1939m</td> <td>024. 34 S439/4</td> </tr> <tr> <td>024. 34 S439/ 1939</td> <td>024. 34 S439/4m</td> </tr> </table>	024. 34 S439/ 1939m	024. 34 S439/4	024. 34 S439/ 1939	024. 34 S439/4m	<table border="1"> <tr> <td>024. 34 M752/</td> <td>1939=4版의 發行年度 m=改訂者 Monro 4=4版의 回數表示 M=改訂者基本記入에 의한 Monro에서</td> </tr> </table>	024. 34 M752/	1939=4版의 發行年度 m=改訂者 Monro 4=4版의 回數表示 M=改訂者基本記入에 의한 Monro에서
024. 34 S439/ 1939m	024. 34 S439/4							
024. 34 S439/ 1939	024. 34 S439/4m							
024. 34 M752/	1939=4版의 發行年度 m=改訂者 Monro 4=4版의 回數表示 M=改訂者基本記入에 의한 Monro에서							

Fifth edition 1944 ed. by Isabel Stevenson Monro	024.34 S439/ 1944m	024.34 S439/5	024.34 M752/2	l=書名 List...에서 5=5版의 回數表示 2=全體는 5版이나 Monro에 의해서는 2版이므로 再版의 表示
	024.34 S439/ 1944	024.34 S439/5m		
Ninth edition 1965 ed. by Barbara M. Wostly	024.34 S439/ 1965	024.34 S439/9	024.34 W529/	9=9版의 回數表示 1965=9版의 發行年度 w=改訂者Wostly W=改訂者 Wostly를 中 心한 圖書記號
	024.34 S439/ 1965w	024.34 S439/9w		

版表示方法을 原著者를 中心으로 한 方法과 改訂者를 中心으로 한 方法으로 表示하였다.

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原著者를 中心으로 한 請求記號作成에서 年度表示만으로 版次의 回數에 의한 序列은 決定되나 原著者에 의한 改訂과 改訂者에 의한 改訂을 請求記號 만으로 區分할 수가 없다. 이를 解決하기 위해서 年度에 改訂者의 처음 文字를 附記하여 보았으나 書誌的 表現이 그다지 明確하지 못하다. 版次의 表示를 아라비아 숫자로 하였을 때 版次의 表示만으로 正確한 序列을 決定하는 것이 可能한 뿐 아니라 改訂에 대한 書誌的인 意味를 나타내기 위해 改訂者를 版次に 이어 表示하므로 比較的 簡單히 諸條件에 附合된 請求記號의 作成이 可能하였다.

改訂者를 中心으로 하였을 때 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同一한 分類番號에 版次順에 의한 配列이 되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同一한 主題를 가진 다른 圖書와 混合配列될 수 밖에 없도록 되어있다. 例의 初版과 3版까지는 原著者에 의한 改訂이므로 同一 分類內에서 版次順에 의한 配列이 될 수 있으나 4版과 5版은 改訂者가 Monro인 「M752/」이므로 初版의 Sears에 의한 「S439/」보다 그 序列이 앞서는 것이다. 또한 同一한 改訂者에 의한 數版의 改訂은 그대로 序列이 決定되나 全體的인 序列이 混合된다는 意味에서 또는, 同一圖書가 改訂者의 文字順에 따라 다른 圖書와 混合된다는 問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例의 4版과 5版의 경우 同一 改訂者에 의한 것임은 表現이 되나 全體的인 改訂의 版數는 請求記號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도록 되어있다.

6) 書名基本記入에 의한 改訂書

다음 經濟史에서 보는 바와 같이 書名基本記入의 경우 圖書記號의 作成은 基本記入된 書名의 처음 文字에 의한 圖書記號가 構成되기 때문에 著者表示欄에 書

經濟史

崔文煥 朴峻緒 共著
吳日弘 禹基度

4294年 4月 20日 再版發行

㉑ $\left\{ \begin{array}{l} 320.9 \\ \text{경} 47 \text{ } \Gamma \end{array} \right.$ Γ = 版次表示 受入順 記號

㉒ $\left\{ \begin{array}{l} 320.9 \\ \text{경} 74 \text{ } \Gamma \\ 1961 \end{array} \right.$ 1961 = 再版의 發行年度

㉓ $\left\{ \begin{array}{l} 320.9 \\ \text{경} 74 \text{ } \Gamma 2 \end{array} \right.$ Γ = 再版의 版次回數表示
을 위한 印의 부호

2 = 版次의 回數表示
경 = 書名「經濟史」에서

VALUES AND POLICY IN AMERICAN SOCIETY

by Russell E. Dayliff [and others]

Second edition 1954.

㉔ $\left\{ \begin{array}{l} 334.1 \\ \text{V} 215 \text{ } a \end{array} \right.$ V = 書名 Values...
a = 版次表示를 위
한 受入順 부호

㉕ $\left\{ \begin{array}{l} 334.5 \\ \text{V} 215 \\ 1954 \end{array} \right.$ 1954 = Second ed. 의
發行年度

㉖ $\left\{ \begin{array}{l} 334.1 \\ \text{V} 215 \text{ } A 2 \end{array} \right.$ A = 版次表示를 위한 印의 부호
2 = 版次의 回數表示

名表示를 위한 細心한 注意가 要請된다. ㉑의 경우「경 74 Γ 」, 「V215a」에서「 Γ 」과「a」는 版次表示로 受入順에 의한 序列의 表示이다. ㉒의 경우는 改訂年度를 圖書記號와 行을 달리하여 表示하게 되므로 改訂을 위한 特別한 注意가 必要치 않다. ㉓의 경우는 ㉑와 ㉒과는 달리 版次의 表示를 아라비아 숫자로 表示하기 때문에 이어 版次의 表示를 하는 것은 數字의 連續이란 點에서 그 區分이 困難하다. 그래서 例의「경 74 Γ 2」와「V215A2」에서「 Γ 」⁽²⁴⁾과「A」는 各各의 文字 중 제일 처음 文字를 任意附號로 附記하고 이어서 版次表示를 하므로 著者番號와 그 區分이 可能하도록 하였다.

7) 翻譯과 改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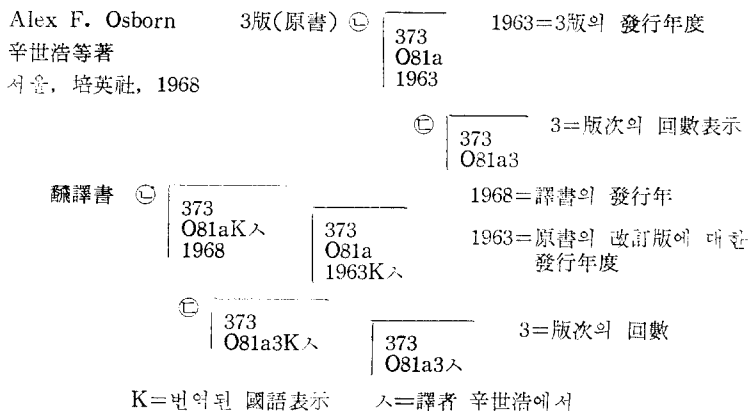
이 경우는 두가지로 생각하였다. 첫째는 改訂圖書의 翻譯表示와 둘째는 翻譯圖書의 改訂表示이다.

① 改訂書의 翻譯表示

想像 工學
APPLIED IMAGINATION 初版(原書)
3rd Edition, 1963

$\left\{ \begin{array}{l} 373 \\ \text{O} 81 \text{ } a \end{array} \right.$ O = 原著者 Osborn...
a = 原書名 Applied...

<24> 金南碩, 圖說圖書編目, 大邱, 啓明大學校出版部, 1975. p. 89.



例와 같이 發行年度를 版次表示로 使用하였을 때 發行年度와 譯者와의 記載 順序가 그 資料의 配列의 順序를 決定하게 된다. 原書의 圖書記號를 中心으로 翻譯書의 圖書記號를 構成해야 한다면 原書의 「O81a 1963」에 附記하는 것으로 翻譯書는 原書의 다음에 配列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翻譯書라도 版次를 위한 發行年의 表示를 例와 같이 翻譯書의 發行年度를 表示한다면 原書와는 그 配列에서 相當한 間隔을 維持한 뿐 아니라 譯者의 表示位置도 어렵게 된다. 譯者를 「O81aK入 1968」과 같이 發行年度의 앞에 附記하면, 原書의 初版을 翻譯한 것으로 表示되며 再版의 翻譯과는 尙히 區分할 수 없다. 그래서 原書에서 再版의 表示로 주어진 發行年度, 즉 「O81a 1963」의 1963表示 다음에 譯者를 表示해야만 그 配列의 序列이 恰當의 意味와 一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될 때는 卷表示와 圖書記號의 構成이 相當히 複雜한 것으로 된다.

版次의 表示를 아라비아 숫자로 表示할 때는 比較的 쉽게 問題를 解決할 수 있다. 原書의 初版 「O81a」에 3版 「O81a3」을 써서 作品表示 다음에 版回数를 附記함으로 簡單히 解決할 뿐 아니라 初版의 翻譯書인 경우는 初版의 圖書記號 「O81a」에 翻譯의 表示로 Korean의 國語表示나 譯者의 “신세호”를 「O81aK入」로 附記하면 되고 3版의 경우 3版의 圖書記號 「O81a3」에 國語表示와 譯者를 「O81a3K入」으로 附記하면 된다. 그러나 發行年度의 附記 때와는 달리 圖書記號가 比較的 複雜한 것이 短點이기는 하나 識別이 可能한 範圍에서 省略할 수도 있다. 「O81a3K入」에서 文字의 特殊性 때문에 國語表示인

“K”를 附記하지 않아도 “s” 만으로 韓國語로 翻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O81a3s」으로도 圖書記號 構成이 可能하다.

② 翻譯書의 再版表示

有機化學
ORGANIC CHEMISTRY
Third Edition, 1973
Robert T. Morrison
Robert N. Boyd
中西香爾 黑野昌庸
中平靖弘 共譯
第2版(1976), 第3版(1977)

初版(原書) ㉠

437
M881o
1973

M=原著者 Morrison
o=原著作 Organic...

㉡

437
M881o3

3=3rd ed.에서
1973=3版의 發行年度

再版(譯書) ㉠

437
M881o
1973J나2

437
M881oJ나
1976

1973=原書의 3
版 發行年度
J=國語表示
Japan⁽²⁵⁾

㉡

437
M881o3J나2

437
M881o3나2

나=譯者表示
2=版次의 回數

1976= 譯書의 改訂版發行年度 3=原書의 版次回數

3版(譯書)

㉠

437
M881o
1973J나3

437
M881oJ나
1976

㉡

437
M881o3J나3

437
M881o3나3

本書는 原書가 3版이 發行되었고 이 3版을 日本에서 翻譯하여 發行하였는데 그 翻譯版을 3회에 걸쳐 改訂하여 發行한 것이다.

圖書記號를 통해서 原書의 版次, 譯書의 譯者, 國語表示, 版次表示를 同時에 해야 한다는 點과 그들 版의 性格에 따라 秩序있게 配列한다는 것은 먼저 書誌的인 意味와 그 構成에 先後를 分明히 해야한다. 本書의 경우 原書의 數版에 改訂과 譯書의 改訂에 의한 여러 圖書의 發行은 原書는 原書끼리, 版次에 따라 모이게 하고 同一版의 翻譯書는 該當版의 原書와 나란히 配列되게 해야한다.

이러한 것을 充足하기 위한 圖書記號의 作成은 ㉠의 發行年度表示方法에서는 翻譯書의 發行年度와 原書의 發行年度를 表示하는 두가지 方法으로 하였

(25) Mann, Margaret. *op. cit.*, p.93.

으나 前者는 書誌의인 順序에 따라 發行年度에 翻譯과 改訂事項을 附記하였고 後者는 譯書의 改訂年度를 表示하고 譯者의 表示는 原書의 版에 關係없이 圖書記號上에 表示하므로 論理的인 意味의 賦與는 못되어도 比較的 簡單히 表示된 例라고 할 수 있다. ㉞의 경우 書誌의인 表現方法에 따라 圖書記號上에 譯者의 表示와 改訂의 表示를 理論的으로 展開하였다. 이것은 書架配列上의 位置를 크게 考慮한 것으로 圖書記號의 構成 自體는 比較的 複雜하지만 圖書記號의 構成條件을 다양하게 充足시킬 수 있는 方案이라 하겠다.

8) 全集에서 各卷의 版次가 다를 때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by Otto Jespersen

Part I. Sounds and Spellings

Fourth edition, 1928

Part II. Syntax, Volume I.

Third edition, 1928.

745
J58m
pt. 1

J=著者 Jespersen
m=書名 A Modern

pt. =part의 表示

745
J58m
pt. 2

本書는 全體를 4部分으로 하고 各部分을 한 冊으로 發行한 것으로 例와 같이 各部分은 그 改訂에 대한 版次가 一致되지 않고 各各 다르다. 이와 같이 한 圖書에 屬한 즉, 叢書나 全集 內에서 各 圖書가 版次를 달리하고 있을 때는 統一된 圖書記號인 初版의 것을 基準으로 하고 卷次表示로 各卷을 區分하되 各卷의 版次事項을 一般註記한다.

年度順에 의한 版次表示일 때는 前述한 바와 같이 各卷의 版次를 위한 年度를 圖書記號에 表示하지 않고 一般註記한다.

9) 年度에 의한 表示

문교 통계 연보

1978년도판

문교부

㉞ 370.53
한16口
1978

㉟ 370.53
한16口'78

版次의 回數를 發行되는 該當年度로 表示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것은 特別히 時代性을 要하는 資料들인데 年度別로 刊行한 豫想問題集이나, 百科事典, 年鑑 등이 여기에 屬한다. 이러한 것은 發行年度가 改訂의 版次에 대한 回數를 意味하기 때문에 該當年度를 圖書記號에 附記하여야 한다.

例와 같이 ㉠은 圖書記號와 當該年度를 別個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 記載方法이 比較的 쉽게 解決되었다. ㉡에서는 圖書記號에 連續해서 記錄한 것이다. 圖書記號에 該當發行年度를 完全히 記載한다는 것은 複雜하고 場所(空間)問題가 있기 때문에 意味를 喪失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簡略히 表示하기 위해 共通된 1900을 省略하고 '78만 附記하였다. 이때 版次の 回數에 의한 版次表示와 年度에 의한 版次區分을 위해 省略된 1900을 省略附號로 表示하고 該當年度인 '78을 附記했다. 이렇게 될 때 圖書記號의 構成에 있어 省略附號를 使用한다는 意味에서 그 配列基準의 問題가 생기기도 한다.

10) 特殊版 表示

a) 內容의 改變이나 發行處에 의한 版

이는 內容의 理論에 대한 改訂이 아니고 단순히 要約的인 意味나 發行事項에 의한 次異에 불과하므로 內容의 改訂的인 것과 區別된다. 이와같은 경우는 圖書記號上에 版次の 表示로 區分될 수 있게 하는 것 보다는 原著者의 圖書記號에 간단한 문자를 부기하여 原書와 나란히 배열되게 해야 한다. (26)

이때 부기되는 부호는 原著者의 改變에 參與한 著者 以外の 참여자에 따른 文字를 부기하거나 별도의 참여자가 없을 때는 改變을 表示한 單語의 처음 文字를 原著者의 圖書記號에 부기하여 原書者와 나란히 배열되게 한다.

印刷에 의한 地域的인 版의 區分은 版에 대한 文字를 부기하여 區分할 수 있다.

SPANISH CLASS

by Alice Wilson Frothinghom

初版(英國)	770
	F941s

© 1963 by Alice Wilson Frothinghom,

Great Britain

初版(美國)	770
	F941sa

1964 First American Edition

Published by Thomas Yoseloff Inc.

New York.

770
F941s
1962

本書는 1963年 英國에서 發行한 것을 1964年 美國에서 다시 發行하였으므로 內容上에는 變化가 없지만 出版社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英國版의 圖書記號를 「F941s」로 하였을 때 美國版의 區分을 위해 다음과 같이 두가지 방법으로 생각했다.

(26) AACR-14 규정참조

① 「F941sa」 이때의 “a”는 American Edition이라 해서 부기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版次로 주어진 區分은 아니지만 出版社가 다른 두책이 同場一所에 나란히 꽂히지면서 서로가 區分될 수 있게 圖書記號를 만든 것이다.

② 「F941s 1962」 이는 發行年度를 부기해서 英國의 初版과 區別되게 한 것이다. 發行年度만으로 出版에 의한 版의 區分은 될 수 있으나 改訂에 의한 版次의 區分과 區別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기도 하다.

b) 購買對象에 의한 版

이는 內容上의 改訂이나 改變을 위한 版表示가 아니기 때문에 圖書記號上에 特別한 版의 表示는 必要치 않으나 그 版에 대한 사항이 圖書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때는 카드상에 一般記號로 表示해야 한다.

c) 古書에 의한 版

古書인 경우 圖書記號에 表示될 수 있는 版의 區分은 活字의 名稱을 그대로 使用하거나 그 活字를 사용하여 刊行된 年度를 附記하여 表示할 수 있다. 이외에 活字마다 簡略한 附號로 表를 만들고 이 주어진 附號를 附記하는 方法도 있다. 이 세가지 方法 중 그 圖書館의 性格에 따라 擇할 수 있으나 文字에 의한 區分보다는 數字에 의한 區分이 보다 簡便한 方法이라는 點에서 刊

資治通鑑綱目

朱熹(宋) 著

庚子字版

912.03
주9대
1420

912.03
주9대
경자

甲寅字版

912.03
주9대
1434

912.03
주9대
갑인

丙辰字版

912.03
주9대
1436

912.03
주9대
병진

癸丑字版

912.03
주9대
1493

912.03
주9대
계축

韓構字版

912.03
주9대
1782

912.03
주9대
한구

行年度를 使用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古書에 있어서 모든 圖書의 刊行年度를 正確히 推定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許多하므로 實際 適用에는 問題가 많다. 또한 古書는 活字 이외에 木板石版, 陶活字, 近代鉛活字 등 여러가지 方法에 의해 刊行되었으므로 이들을 모두 表로 만들어야 한다. 이 중 木板인 경우 版次表示가 아니고 版種의 記錄이므로 無意味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의 木板印刷는 統一新羅부터 비롯되었으니 時間的으로 약 1000年の 間隔이 생기는 것이므로 木板에서도 細分이 必要한 것이다. 또한 活字本에서도 甲寅字, 乙亥字의 경우는 宣祖初까지 使用되었으니 100~150年の 時間的인 間隔이 있다. 그러므로 活字의 名稱이나 附號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可能하면 刊行年度를 附記하는 것이 좋다.

Ⅳ. 結 言

圖書館의 圖書整理業務 중에서 가장 細心하고 組織的인 知識과 注意가 要求되고 있는 圖書記號의 構成에 있어 版次의 定義, 種類와 그 構成方法을 考察하고 이에 따라 實際 適用과 問題點을 分析하였다.

本研究는 먼저 版의 概念과 適用範圍를 確定하기 위해 既存 文獻들에서 分析하고 綜合한 結果 版이란 “同一形態에 의해 同時에 혹은 間歇的으로 印刷된 著作의 形式表示를 말하며, 版次의 適用範圍는 “原文의 變更, 活字의 變更, 圖書形態의 變更” 등임을 밝혔다. 그리고 版은 “版數” 즉 圖書의 內容에 따른 區分과 圖書의 物理的 變化에 따른 區分인 “版種”으로 나눌 수 있음을 考察하였다.

版次表示方法은 研究의 限界에 의해 文獻을 통해 理論化한 것만을 抽出하여 다음의 세가지로 集約하여 이에 따른 例示를 附記하고 諸問題點을 分析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① 版次를 文字로 附記하는 方法

ㄱ. 版次의 回數에 대한 序列에 關係없이 受入順에 따라 文字를 附記하는 方法

ㄴ. 改訂에 대한 版次의 回數를 數字에 의하지 않고 文字의 順序로 附記하는 方法.

② 發行年度를 數字로 附記하는 方法.

- ㄱ. 圖書記號에 發行年度를 混合하여 附記하는 方法.
- ㄴ. 圖書記號와 發行年度를 行을 달리하여 附記하는 方法.
- ③ 版次の 回數를 數字로 表記하는 方法.

위의 세가지 版次表示方法 중에서 ①의 方法은 版次の 回數에 關係없이 受入順에 의해 그 圖書館에 到着된 序列이므로 版次の 變化에 따른 圖書配列의 秩序化에는 아무런 意味가 없다. 그리고 ②의 方法은 一年을 單位로 版을 改訂하는 圖書의 版次表示에는 適用이 可能하나 年度의 表記만으로는 改訂의 頻度를 正確히 表現하기 어려우며, ③의 方法은 版의 變化에 따른 體系化를 期할 수 있었으며 版次表示에 의해 圖書의 內容이나 書誌의인 形態에 따른 性格을 區分할 수 있음을 確認할 수 있었다.

그리고 抽出된 版次表示의 諸方法에 의해 아래와 같이 各版의 性格에 따른 版次表示의 方法을 例示에 의해 實證의으로 考察해보았다.

- ① 著者自身에 의한 改訂書
- ② 再印刷와 改訂版
- ③ 同年에 2回以上 改訂된 경우
- ④ 著者と 改訂者가 다를 경우
- ⑤ 各版의 改訂者가 다를 경우
- ⑥ 書名基本記入에 의한 改訂書
- ⑦ 翻譯과 改訂
- ⑧ 全集類에서 各卷의 卷次가 다를 경우
- ⑨ 年度에 의한 版次回數 表示
- ⑩ 古書에 版表示의 適用

이러한 各種 圖書性格에 따른 實證的 考察의 結果 一般的인 既存 學者들의 理論들은 圖書記號를 同一主題, 同一形式의 圖書 內에서 圖書를 書架上에 一定한 順序로 配列하고 簡潔하고 正確한 請求記號를 주기 위한 하나의 任意의 附號表示로만 限定하고 있다. 그러나 版次表示의 適用方法에 따라 앞의 版次表示意味 외에 圖書의 書誌形態에 따른 意味表示가 可能했으며 이것은 整理者 뿐만 아니라 利用者에게도 圖書의 모든 性格을 請求記號만으로 識別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

圖書記號 중에서 版次表示方法에 관한 研究는 圖書館의 資料利用을 위한 一次的인 業務가 圖書의 整理이며 圖書整理의 가장 基本的인 機能이 請求記

號의 作成임을 감안할 때, 版次表示의 細心한 部分을 點檢하여 方法을 模索하는 일은 바로 圖書의 性格確認과 配列 및 檢索에 體系的 秩序를 부여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過程을 바로 圖書館奉仕의 經濟性에 寄與하는 주요한 것이다.

參 考 文 獻

脚註로 代함.

A Study on the Edition of the Book Number

Kim Nam-Seuk

〈Abstract〉

The book number, among various steps of book processing works, needs more careful attention and better-organized knowledge, and it is more sensitive than other parts of cataloging. This paper will give some suggestions on ways of constructing a book number, including the definition and the types of edition indication within a book number, and analyse some problems related to their application into real situation.

Three possible ways of edition indication with in a book number were explained, and examples were given for each of them. Problems occurring when these codes were applied to books were analysed.

In addition to the generally recognized meaning of the book number as a mean of differentiating similar works, the edition indication can make it possible for both the library staffs and the user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a work only with the book number.

Searches for mere convenient and effective ways of edition indication might be related to the cost-effectiveness of book processing, and of library operation.